

# 복사기기 발달에 따른 저작권 침해상황

## 부과금제도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돼야

李斗暎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복사기기의 발달 보급에 따른 저작물의 무절제한 복사행위로 말미암아 출판물의 전달자인 출판자의 활동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선진국 출판인들은 1976년 국제출판협회 총회를 통해 복사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과금제도와 版面權을 비롯해 집중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출판인들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그 피해는 날로 심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출판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실적으로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1960년 보통용지를 사용한 건식 복사기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복사기시대가 열린 이래

오늘날 복사기는 정보의 보급 전파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정보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절제한 남용으로 야기된 '복사공해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의 복사기기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한해동안 55,184대의 복사기가 생산된 가운데 53,347대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 「산업생산연감」 참조) 이는 1985년과 비교해서 생산량과 출하량이 각각 3.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복사기의 보급이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복사기의 수요증가로 복사기 제조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을 뿐만 아니라 복사서비스 전문업체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1988년 복사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기종도 점차 고급화·고가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할때, 국내에는 지난해 말까지 214,473대의 복사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진계판에 의한 복사·복제 이외에도 마이크로 촬영기에 의해 마이크로폰에 기록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마이크로 리더 프린트에 의해 복사하는 것, 비디오 디스크, 자기 테이프에 입력한 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컴퓨터 조판에 의해 복제하는 것도 복사기기의 대상으로 가산시켰을 때 복사기기의 보급률은 엄청난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복사기의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표1) 연도별 무단복사 적발 및 처리현황

구분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 적발건수	62	185	622	586	1,299	529	181
2. 고소건수	26	50	273	219	415	162	31
3. 처리건수	26	102	410	308	463	185	16
-기 소			1	8	47	38	6
-기소유예			16	27	26	3	0
-기소중지		4	14	15	51	15	2
-무 혐 의	15	3	38	46	98	13	4
-각서징구				1	2	1	2
-고소후 합의	11	36	140	64	34	14	0
-고소전 합의		59	137	89	48	23	2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출판물을 복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사기기 보급에 비례해서 출판물의 복제도 가속도적으로 늘고 있고, 저작권의 침해와 그 경제적 손해의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 출판물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빈번하게 복사 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 전체자료는 한번도 조사 발표된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 통계로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조사한 '연도별 무단복사 적발 및 처리현황'과 같은 자료를 들 수 있다. ((표1) 참조)

이것은 출현이 1983년 이후 불법 복사행위에 대한 자구적 대응책으로 저작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복사업소를 상대로 지도 계몽과 단속활동을 실시하면서 적발한 통계로서 그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198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첫째, 단속인원을 8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였고 둘째, 계속되는 단속활동을 피하기 위해 동일지역 내의 복사업소들이 연락망을 조직해 단속요원이 찾아가면 일제히 철사하는 등 단속요원의 눈을 피하거나 단속활동을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는 데 반해, 사법권이 없는 단속요원의 활동은 극도로 제한받고 있는데 기인한 것일 뿐 결코 무단복제 행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또 이 통계에 제시된 불법 복사 통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복

**프로는 프로페셔널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 우림문화는 인력·기술·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림문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시대의 조류에 항상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전자 편집기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컴퓨터 조판·편집 시스템과 함께 일반 책자는 물론 학습지, 신문, 잡지 등의 편집에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 인력·기술·시설의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 우림문화가 하는 일

- 출판 기획 · 편집 대행 · 광고 기획
- 원색 제판 · 전산 사식 · 수동 사식
- ※ 시모와 사사 등의 기업문화 간행물과 잡지(정기간행물) 창간을 도와드립니다.

#### ● 우림문화의 제작 시스템

- CTS 조판·편집 시스템 · 원색제판 시스템
- Art Work 시스템 · 전산출력 시스템

**한술 밥의 의미를 아는 가족을 구합니다**  
편집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프로를 지지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이력서만 우수해 주십시오.

사 행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심각한 불법복사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출판자와 저작자, 그리고 정부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복사에 의한 피해당사자는 출판자와 저작자 자신임을 자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출판자 사이에도 복사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복사피해는 학술전문도서뿐 아니라 중·고교용 학습참고서와 일반도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복사로 인해 구독자가 줄어들어 도서제작비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책값의 인상은 또 복사기회를 가중시킴으로써 계속 출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작자와 출판자는 공동의 입장에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자 중에는 자신이 쓴 저작물이 자유롭게 복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가 덜 팔려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저자 자신이 쓴 저서가 복사되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의식보다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복사 이용하는 것이 계약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결과에 대한 가해자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작자도 복사로 인한 피해자란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국내 저작물의 무단복제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출협이 실시한 무단복제행위에 대한 사적당

국의 시각은 저작자나 출판자는 가진 자료, 복사업자는 못가진 자료 도식화해 약자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출판자의 권리보호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의 대응책으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복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규율로서의 효력이 미약하다.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인 경우는 권리자의 권익이 정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의 제한규정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은 그 작성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위를 금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法 제98조(권리의 침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복사기기, 컴퓨터 등 뉴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저작권의 이용방법이 다양해짐으로써 새로운 권리의 신설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원고로부터 출판·배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부가된 출판자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는 법적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부과금제도의 도입, 집중관리기구의 설치, 版權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저작권 상황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속히 법적 제도가 개선되어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기대해마지 않는다.

(\* 본고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16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부과금제도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임.)

뉴스

# 일산 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 이사장에 이기웅씨...정관제정·사업계획 승인도

90년대 한국출판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출판도시 건설의 실질적 주역이 될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달 16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300여 가입사 및 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정관제정과 '90~'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에 이어 초대 조합 이사장으로 이기웅씨(열화당 대표)를 선출했는데, 이로써 지난해 6월 결성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웅)가 1년반만에 해체, 사업협동조합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단위 출판단지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실무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기웅이사장은 "출판단지라는 야심적인 구상의 완벽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성과 지혜와 역량을 사업협동조합을 통해 투입하겠다"면서 "출판문화사업을 과학적으로 기획·제작하는 열린 문화의 창출공간으로서의 출판단지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11월15일 현재 총 가입사는 출판사 263개사를 비롯해 인쇄사 28, 제본사 11,



사진 및 디자인사 10, 지업사 13, 제판사 11, 서적도매업 21, 라미네이팅 3개사 등 360개사에 이르며, 전문가 및 실행위원들의 워크숍을 거쳐 마련된 기본설계를 가지고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토지개발공사 및 건설부 등 관계당국과 구체적인 업무추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협동조합측이 출판단지의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고양군 일산읍 부근의 백마역 주변으로 총규모는 약 11만평. 도면상으로는 일산 신도시의 4개 업무지역 중 2개 블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됐는데, 단지 내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유통센터를 비롯해 사회교육문화기능을 해낼 이벤트관, 한국출판의 모든 정보처리 및 회의 등 복합적 기능을 맡게 될 복합출판센터 등이 들어서며 신도시의 성격에 맞는 인쇄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동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12월 8일  
무료공개특강 : 12월 8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케어야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